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벗겨준다 이런 뜻이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남을 언짢게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나도 '서로가 살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 더 좋아야 하고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스님: 허허허허. 모두가 둘이 아니예요. 이게 인생이라는게 참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디서 이렇게 직장을 잃고 담배를 피워서 괴로워하는 걸 보면 하도 가엾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지면 필하고 여자면 필하. 누구나 다 아프면 운다 이거야. 좋으면 웃고 남자는 외로울 때가 더 많지 않나. 속으로 울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문제들도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다가 어떤 열 옆고 걸리고 이렇게 가는 걸 봐도 안됐어요. 물결 흐르는 대로 쪽 앉아서 한숨을 쉰 내쉬고 그러는 걸 볼 때도 그렇구요. 모두가 하나 같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덕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꼭 살아야 돼 있었거든요. 그건 임시 방편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임시방편이 아니라 세세생생이요.

탐하지 말고 생활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시고 비록 스님네들처럼 저 웃음 입고 공부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착을 놓으시고 탐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에도 난 지게 좋으니깐 저거 갖고 싶다는 생각도 안하시는 게 좋죠. 우리가 담배간 살다 헤어질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애석합니까? 뭘 갖고 싶습니까? 보석이 큰 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 우리로서는 흙 덩어리 하나 있는 것과 같이 보일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 생명을 탐이 없는데 어쩌서 다른데에 또 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공생이라는 이 자체는 그냥 버려도 공생이요 또 버리지 않아도 공생이요. 버려도 죽지 않고 안버려도 죽지 않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다 이런 소리죠. 생사의 윤회도 말입니다. 없다 이러는 것이 뜻이죠.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려고 나온 게 아니죠.

스님네들도 참 한번 나와서 한번 머릴 깎았더니 머리가 되더라. 그래서 머리를 깎을 사이 없이 깎아도 또 되나오더라. 끝이 없더라. 끝이 없는 문제를 머리를 항상 깎으면서 끝까지 사람이 돼서 죽 말하지만 회상에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회해서 분리가 되듯이 우리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부해서 회한다면 이 지구가 빌 겁니다.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다 그냥 자유스럽게 된 거죠. 분산된 거죠. 주머니 속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유스러웠는데, 그러니 '너도 가지' 그러면서 자기 좋은 데로 전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해서 모이니까 그것이 많은 은혜로 되고 많은 우주도 되고 많은 등불도 되고 그러죠. 우리 지구에는 등불이 하나밖에 없죠. 허허허허. 다른 목성에는 등불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 놓고도 등불을 하나 다느냐. 집이 면데 있으니까 마당에도 거느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더 지혜롭게 생각을 안으로 굴러서 사제요. 할나할나 돌아 가는 도리를 아니까 뭘을 한다 하고 하는게 아니라 고정된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과거가 있다. 꿈을 꾸었는데 이렇더라. 구경물이 뭐 산더미 같이 들어오니까 우리집은 큰 일났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구요. 모두, 여러분이 마음으로써 개척해 나가시면 정말 순수하게 세세생생 다 걸잡이로서 사실 겁니다.

※ 위 법문은 2000년 3월 5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둘 아닌 도리 알면 미워할게 없어요

15면에서 계속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 뒷면, 즉 그 과거를 보지 못하면 지금을 알 수 없죠. 반면에 현재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면 과거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되죠. 또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고요. 모두가 참 지혜롭고 자유스러워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돌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없는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요. 그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이 나는데 이런 둘이 아닌 깨달이예요. 에너지가 큰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에서 모두 별성이 하나하나 나왔고 그 별성은 다 여러분한테 주어졌거든요.

큰 별을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블랙홀은 왜 블랙홀이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별중에 왜 특별하게 그렇게 크냐.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나 그 모든 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서 우리의 삶이 나온다는 것. 인간도 수명이 다 되면은 껍데기가 벗어지고 알맹이 원소만 남아서 그 원소가 또 다시 반복해서 톤나무가 되고 또 톤이 열리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 별성도 때가 되면 옷을 벗고 원소 자체만 남는 거예요. 그럴 압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부 그것이 한데 합쳐지면서 순환을 하죠. 그게 다 거성되도록 순환이 돼서 나중에 그게 터지면 별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나오죠. 그렇게 반복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사람이라면 이 마음공부를 안 할 수 없죠. 한마음공부 즉 말하자면 공심 공용 공제 공생 공식 이거를 내 몸 하나만 가 알 수 있다. 그러니 꼭 이 공부를 해야만 된다 이런 문제죠.

죽이고 살리는게 공법

그런데 우리가 잘 되기 바라고서 절에 가서 '살려주세요. 내가 잘 할테니 잘 주시요. 좋은 일을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살게 해 주시요.' 이렇게 한다면 항상 얻어먹는 거지와 같다. 목 마를 때 남의 집에 가서 물 한 바가지 주시요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을 생각 안하고 남이 벌어서 놓은 거 한 바가지 달래서 먹는 격이예요. 그건 기록이예요. 몇시간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거를 애석해 하지 말고, 죽기 이전에 이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니니 내 주인의 내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이끌어 가는 거나 같고 고맙게 생각하고 착을 갖지 마세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 죽는다 늦게 죽는다 여기에 의미할 필요가 없죠. 주인이 잘 쓰면 고장이 덜 나겠죠. 이 몸이 자동차라면 말입니다. 운전수인 주인이 그 차를 잘 쓰면 고장도 덜 날 거고 고장이 나도 운전수가 다 고쳐주죠. 그런데 이 차 껍데기인 내가 언제 죽느냐 여기에 애달기만 해 본들 뭘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어리석다 그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어 되나. 그걸 건너다 보고도 결정 못하게 될 수 있는 거, 소가 싸울을 해도 그 소의 경지를 다 알 수 있고 그걸 거들어 줄 수 있어야 되죠. 죽어서 얼른 소의 모습을 벗어내고 난 인간으로서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죽어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죽어서 얼른 소의 모습을 벗어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다가는 길을 못 가시니까 악이든 지 선이든 그냥 함근데다 놓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따지는 일이 돈을 주고 하래도 못하죠. 왜냐. 만약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다 보세요. 마음이 열어나 괴로운가.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거북하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뻗뻗하지 못하고 퍼질 못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사는지 자기 알고 있는데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게 연구죠. 다른 게 연구가 아니죠.

질문자: 광주지원에서 올라 왔습니다. 큰스님의 이렇듯 높고 간절한 회상에서 광주지원 신도들을 대신해서 질문의 인연을 맺게 된 지중환 인연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답을 해주셨는데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질문 올렸습니다. 질문내용은 에너지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큰스님 회상과 이 법문의 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현대불교신문에 '길을 묻는 이에게'를 통하여 또는 한마음요정이나 매달 나오는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그리고 인터넷 한마음선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스님 법문을 접할 때마다 거기서 통함을 느낍니다. 신분이 신분이 아니고 책이 책이 아니고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광주지원 법당에서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볼 때면 그때는 더 큰 힘을 느낍니다. 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큰 스님을 직접 뵈게 되면 너무 너무 마음 깊어 되새겨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큰스님 회상이 무한량의 에너지라고 생각되는데 큰스님의 높이신 가르침 칭합니다.

스님: 여지껏 얘기했고 또 지금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듣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틀리죠. 즉 말하자면 진것들과 진것들이 한데 합쳐짐으로써 불이 들어온다면 이게 둘 아니게 하는 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묻는 분도 없고 묻은 예도 없고 대답할 예도 없는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 생각이 에너지를 불리고 쓰고 또 불리고 쓰고 하는 것에 속한다는 얘기도.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살법 들고 그냥 헤어지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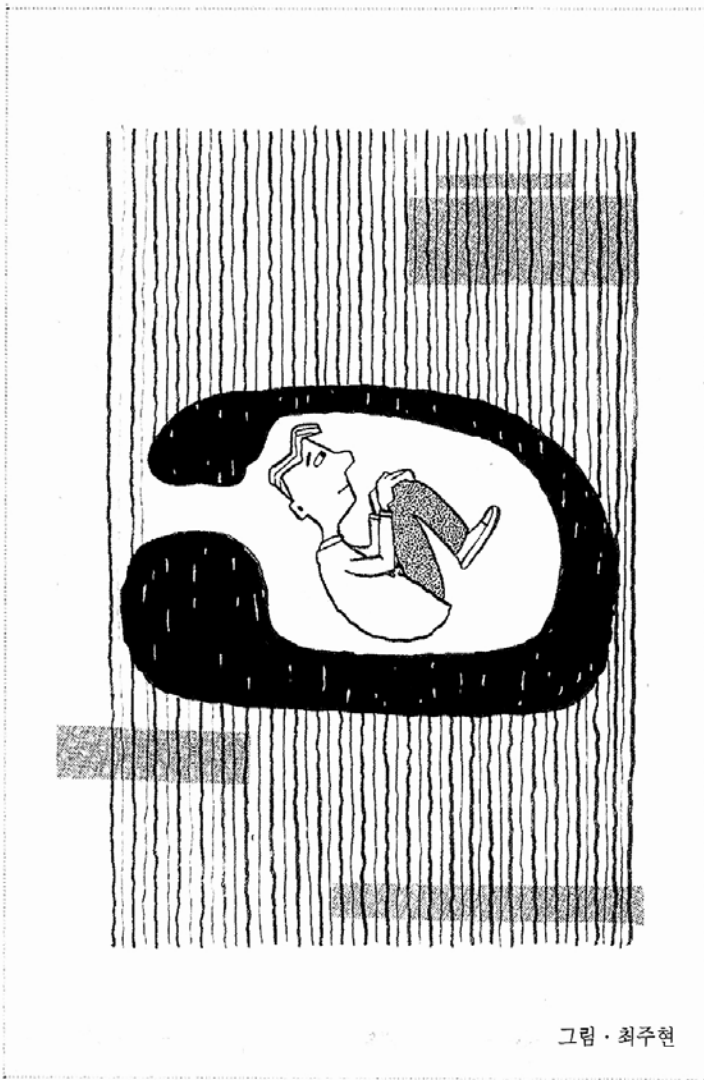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부처님은 미생물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한마음 돼 주지요

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거와 같이 이 은하계에서도 한번 터지면 수없이 나온다. 새로 나온 것은 크고 또 나중에 늙게 되죠. 사람도 늙으면 옷을 벗듯이 별성도 원소만 남으면 그 원소까지 또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도리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주인공이라는 이 셋발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것은 연법 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멀어도 먼 사이가 없고 가까워도 가까운 사이가 없다. 가고 음이 없다. 얼마나 가까우면 가고 음이 없었나 했겠습니까? 금방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힘이 에너지가 되어 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끔 나타나서 견져지고 이익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전체가 다 그런 거나깐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이게 맞습니다. 어쩌다 이름을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몰라도 좋습니다. 이름을 알고 한다면 이미 늦어지죠. 예를 들어서 6·25전쟁때 보니까 사람이 먹고 체했는데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의사가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는데 그 사람이 다 없으면 어쩌냐. 그럴 말은 이 그냥 체가 늦게끔 하는 것이 그냥 원력이죠.

질문자: 제가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의 어머니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건강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드렸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문득 관하는 도중에 꼭 큰스님처럼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라고 발원을 몇 번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스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발원드립니다.

귀신 방귀털 잘 먹어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주인공을 관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었는데요. 책에 보니까 주인공이란 우리가 마음으로서 알아질 수도 없고 어떤 형체도 없기에 참나를 상봉하기 전에는 그 자리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찰 때에 주로 가슴쪽에다 내 마음을 응시하고서 마음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는 머리쪽에 서 생각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쪽으로 해서 밝은 광채가 나오는 느낌

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는 건 어디 특별히 있는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관해도 일들이 뜻하는 대로 풀려지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했거든요. 이게 올바른 공부방법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우리가 지금 말을 하죠. 수없이 바뀌서 말을 해도 그 말 나오는데는 지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에너지가 한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말을 하려면 나오고 안 하려면 막히고 그러죠. 그러니 이 모습이 있으니까 이 모습에서 공생으로서 공용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제일이나 내가 제일이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뱀이 어느날 꼬리가 앞장 서겠다고 하는 비방에 가시답답에 필러 죽었다잖아요. 공생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게 몸체가 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실도 공했으니가 공한 대로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공심의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모든 게 아닌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닌 것 때문에, 아닌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은 어디 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방귀씨는

라고 불려요. 이름없는 이름입니다.

질문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책에서 보니까 주인공은 절대선이라고, 선을 바탕으로 한다 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안좋은 마음을 냈는데 그 후에 제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나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좋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 인과가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절대선이라면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썼어도 주인공이 좋게 나쁘게 작용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참 의문이 나거든요.

스님: 오늘 참 질문 잘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야 할테니까요. 집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못했죠. 주인공이 절대선이라는데 왜 그렇게 나쁘게 했나 하고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구멍이 뚫렸는데 구멍이 있으면 가지마라 이렇다면 어 린아들은 구멍이 있는지 말든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이 빠져 봐야 구멍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거리가 가지 말라는 건 구멍이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알

가짜로 인목을 남듯 고맙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인 288쪽
 값 6,000원
 여서이문